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9
2024. 11



전라남도 여수 사도·추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9
2024. 11



전라남도
여수 사도·추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섬 단어 사전



03 무인도(無人島)

PHOTO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사도와 추도, 이름에 깃든 이야기
백악기부터 이어져 온 시간의 흔적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2 내 섬은 내가 지킨다. 사랑하니까 / 추도 조영희 님
15 옛 사도에만 살아봐서 / 사도 장원모 님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8 사도&추도 투어 가이드 : 교통 및 숙박 정보
여수 사도 · 추도 투어 가이드
20 알면 알수록 더 생생해지는 공룡 발자국의 흔적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시웃 구독을
하고 싶다면?

도움 주신 분



- 조영희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 장원모 사도 이장
- 김은선 여주시 화정면 주무관
- 사단법인 섬연구소

발 행 처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 에디터 김신연 (fun1015@korea.kr)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섬과 함께 천천히 걸어볼래?

- 섬사람들의 손길이 만든 예술, 당신의 선택은?
- 사도 둘레길, 느긋하게 걷는 그림 같은 산책로
- 시간이 멈춘 섬, 추도탐험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2 이달의 주요 섬 뉴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0 1월부터 12월까지,
사도와 추도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섬 단어 사전

무인도(無人島)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경이며 영토적, 산업적, 생태적으로도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다. 무인도를 구분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영토인 무인도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인도를 더 알고 싶다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사도와 추도, 이름에 깃든 이야기 »»»»»

섬의 이름에도 그곳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품고 있지요. 사도는 바다 한가운데 모래로 쌓인 섬처럼 보여 '모래사(沙)'와 '호수호(湖)' 자를 사용해 '사호도'라 불렸습니다. 추도는 사도에서 약 1km 작은 섬 마을로, 취나물이 많이 자라 '추도'라 불렸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 사도와 추도의 오랜 역사 이야기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도와 추도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기 위한
핵심 포인트 (사진제공 : 여주시 관광과)

백악기부터 이어져 온 시간의 흔적



사도와 추도는 2000년 12월에 중생대 백악기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면서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열을 가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보존되어 있으며,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과 화성암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어 독특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사도에는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딱시루를 얹어 놓은 듯한 모습 때문에 '시루섬'으로 불리는 중도에서 그 특별한 바위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들에 얹힌 대표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얼굴바위 이야기



중도(시루섬)의 기이한 바위들 - 얼굴바위 (사진제공 : 여수시 관광과)

시루섬을 대표하는 바위 중 하나인 '얼굴바위'는 날카로운 못날을 지닌 남성의 옆모습을 닮아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굴바위와 거북바위에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이 둘은 사도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석문을 지나 용궁으로 가는 길에 흑시라도 악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용왕이 직접 용궁장군과 거북을 보내 그 길을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도의 자연경관에 드러나는 퇴적암층



거북바위 이야기



중도(시루섬)의 기이한 바위들 - 얼굴바위 (사진제공 : 여수시 관광과)

거북바위는 거북이 모양을 닮아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명석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 거북이 모양의 바위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거북바위는 얼굴바위 뒤를 따라 여자만 쪽으로 목을 곧추세운 형상이 특징입니다.

가는 곳마다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사도와 추도 여행, 떠나보시겠어요?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섬과 함께 천천히 걸어볼래?

#1

섬사람들의 손길이 만든 예술,
당신의 선택은?



사도와 추도 마을을 걷다 보면, 섬의 돌담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에 눈길이 멈추게 됩니다.

두 마을의 돌담은 기능은 같지만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마을의 돌담은 둥글둥글한 돌들을 무심하게 툭툭 얹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돌을 주워 자연스럽게 쌓아 올린 듯 소박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 돌담은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듯한 모습이 매력적이죠. 어쩌면 섬 주민들의 느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닐까 상상하게 됩니다.

반면, 추도의 돌담은 마치 정교한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납작하고 평평한 돌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쌓여 반듯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도의 돌담을 쌓은 사람들은 각 돌을 제자리에 맞춰가며 성실하게 시간을 들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돌담을 보고 있으면 섬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과 꼼꼼한 성격이 느껴지죠.

이렇게 다른 개성을 가진 두 마을의 돌담 중,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둥글둥글 무심하게 쌓은 사도의 돌담인가요, 아니면 정교하고 반듯하게 쌓아올린 추도의 돌담인가요?



사도의 둥글둥글 돌담



추도의 납작한 돌담

#2

사도 둘레길, 느긋하게 걷는 그림 같은 산책로



○ 사도 둘레길을 걷다 바라본 그림같은 풍경

○ 바닷물이 빠진 뒤 나타난 시루섬 가는길의
공룡발자국 화석과 바위들

사도의 둘레길은 평소에 운동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감탄하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고 아름다운 산책 코스입니다.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하게 만들죠. 어디를 가든 멋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특히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멋진 시가 적힌 표지판이 자리하고 있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를 읽으며 섬의 분위기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신 지 영

육지를 떠나 바다 저 만치서
둥둥 떠다니다가
불가사리 같은 다리를 뻗은
일곱 길 섬이 있다

모래섬은 이별의 상처가 깊다
몸은 떠나도 생각이 남아
가슴을 두들기는 울림이
아픈 발자국을 꺾꺾 눌렀다

해마다 물길이 열리는 날이면
낮선 사람들이 이름표를 달고
섬사람들 가슴팍에
둥글둥글 자리를 편다

열길로 왔다 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다가 지워버릴 사연을
저기 살짝 두고 떠났지만
모래섬은 지금도 바다로 간다

사도 둘레길에 만난 시 한편



사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섬연구소 백섬백길에 소개된 '사도 둘레길'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사도는 공룡의 섬이다. 사도 해변은 중생대 공룡의 시대가 남긴 발자국들로 가득하다. 사도 둘레길은 4개의 섬을 잇달아 걸으며 공룡 발자국 화석과 온갖 형태의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찰랑찰랑 파도 소리를 들으며 물이 빠진 모래톱 위를 걸어 증도로 가는 길은 사도둘레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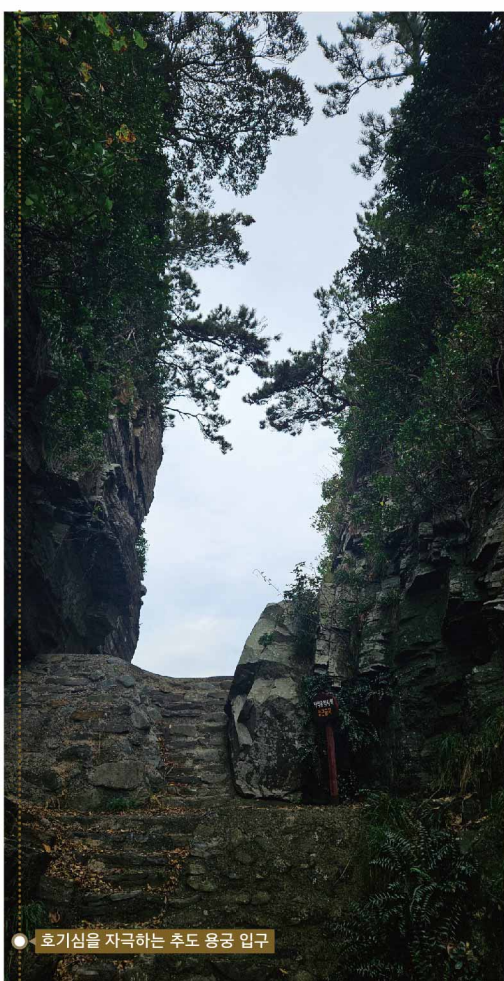
▶▶▶▶▶ 섬연구소 백섬백길 사도 둘레길 코스 소개된 내용

백섬백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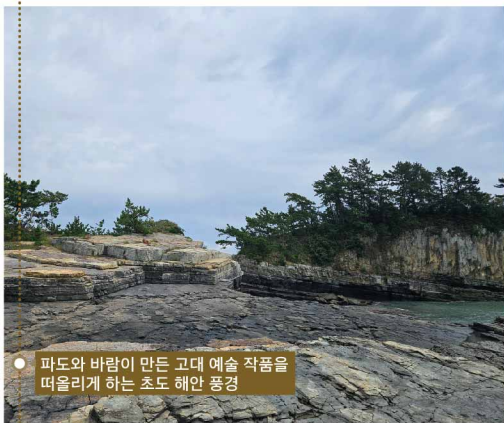


사도 둘레길 코스가 궁금하다면? 더 자세한 정보는 QR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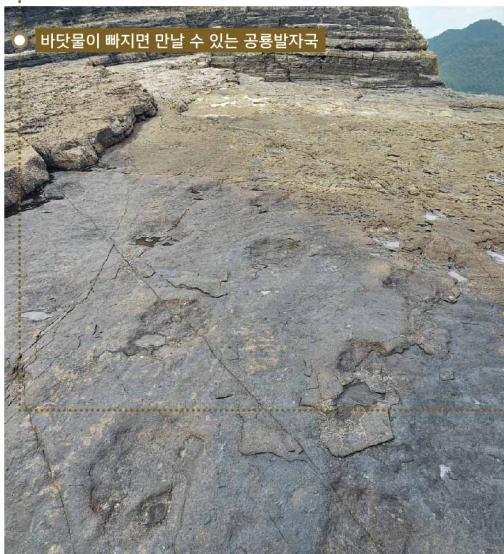
백섬백길이란? 대한민국의 4,000여 개 섬들 중에서 가장 걷기 좋은 섬길 100곳을 선정한 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섬 연구소의 모체인 인문학습원 섬학교(교장: 강제윤)에서 10년 동안 연인원 3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100개의 섬길을 답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1년간의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백섬백길이 완성되었습니다.



● 호기심을 자극하는 추도 용궁 입구



● 파도와 바람이 만든 고대 예술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추도 해안 풍경



● 바닷물이 빠지면 만날 수 있는 공룡발자국

#3

시간이 멈춘 섬, 추도 탐험

고요한 바다에 둘러싸인 추도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즈넉한 섬마을의 정취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섬 곳곳을 탐험하며 드넓은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길을 걷다 보면 천천히 흐르는 섬의 시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수 추도의 용궁에 다가서니 바닷물이 빠진 해안에 수천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기암괴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도와 바람에 갈고닦인 이 바위들은 마치 자연이 그려놓은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고, 공룡 발자국도 여기저기 눈에 띄어 고대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용궁으로 들어서자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마치 오래된 전설 속에 등장할 법한 신비한 에너지가 주위를 감싸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저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울리는 소리는 깊은 심해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자연의 거친 숨결과 조화된 섬의 풍경은 압도적인 경외감을 자아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닌, 시간을 거슬러 자연의 역사와 신비를 만나는 특별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추도는 작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팽나무가 안내하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섬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면 오래전 이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추도분교에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겨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섬의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파노라마가 펼쳐지며, 탁 트인 바다와 섬 주변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상에 서서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바람에 실려오는 섬의 공기와 자연의 향이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추도분교에 잠시 머물러,
그 시절의 정취를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 길의 시작을 알리는 팽나무



●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폐교, 추도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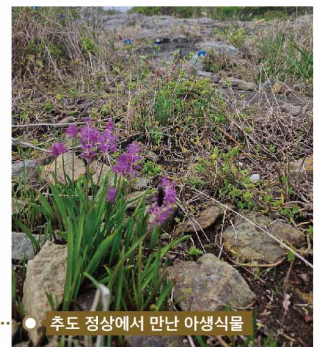


● 추도 정상에서 마주한 사도의 풍경

눈길을 발 아래로 돌려보면, 땅 위로 드문드문 자라는 야생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섬의 땅과 바람, 비를 머금으며 자라온 이 작은 생명들은 마치 섬의 수호자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가지런히 늘어선 야생화들, 끈질기게 뿌리를 내린 풀과 작은 나무들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도는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 섬을 걸으며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다 보면, 자연이 주는 가치와 그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과 평온함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며, 추도의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소중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추도를 찾는 모든 분들께,
이 특별한 섬을 소중히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도 정상에서 만난 야생식물

RESOURCES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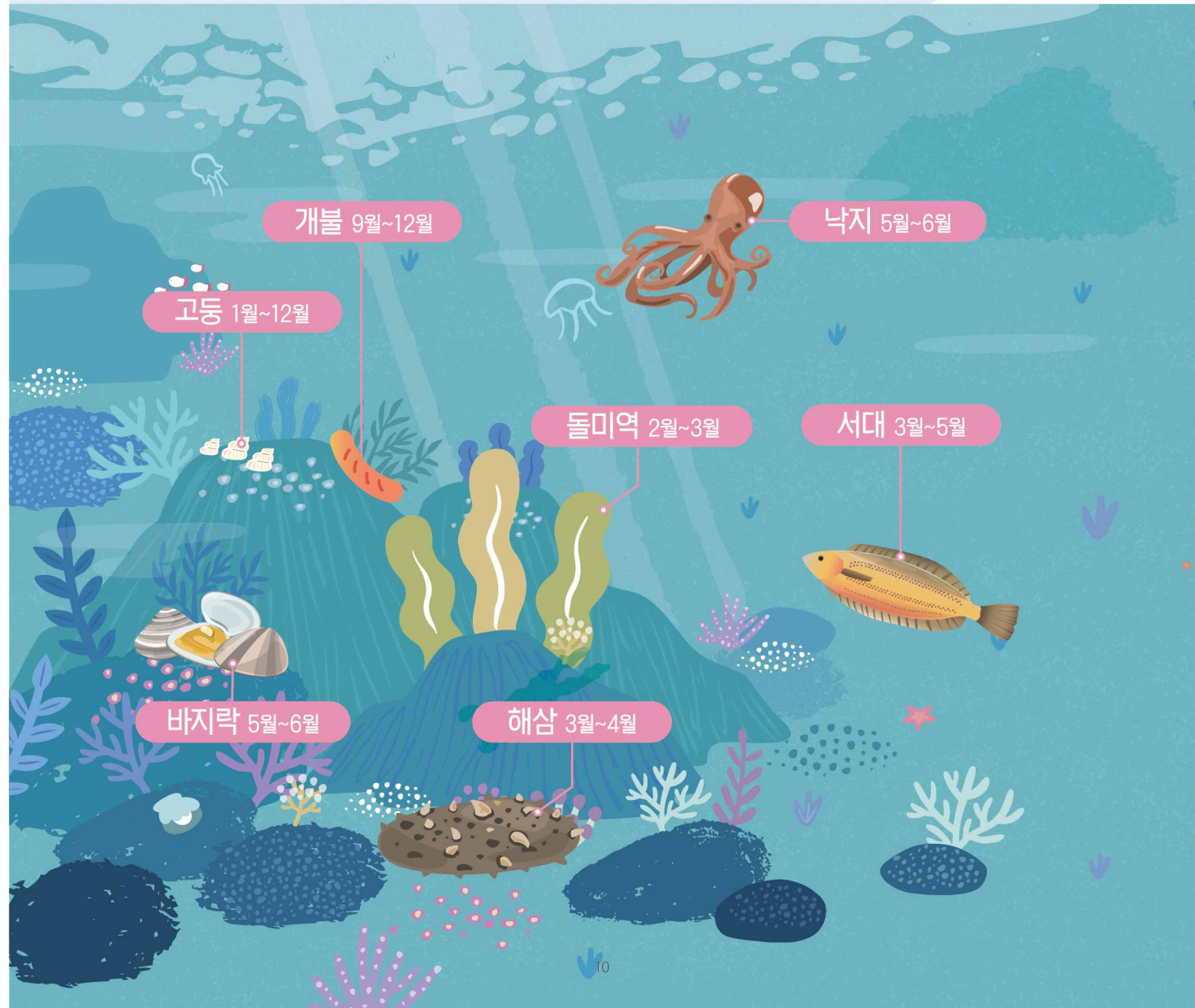


1월부터 12월까지,

사도와 추도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여수 사도와 추도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촌의 일손은 더욱 바빠지고, 그들이 맞이하는 바다의 선물도 다채로워집니다. 봄에는 새싹이 움트듯 물고기 떼가 몰려들고, 여름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풍성한 해산물들이 바다를 채웁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물살 속 생명도 목격해지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다에서 강인한 생명이 자랍니다. 매달 그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사도와 추도의 바다,

어떤 어종이 우리의 식탁을 채우고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계절별
농산물

三

상추, 고추

여름

콩, 깨, 마늘

가을

고구마, 동부, 늙은호박, 마늘

겨울

배추, 마늘, 쪽파, 무



돌김 11월~12월

거북손 9월~10월

노래미 9월~12월

톳 2월~7월

능성어 9월~12월

볼락 9월~12월

문어 3월~12월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섬은 내가 지킨다. 사랑하니까.

주도 조영희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



Q1

주도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 섬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A1

제가 이 섬과 인연을 맺게 된 건 25년 전, 주도분교를 공매로 매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는 오가며 섬을 둘러보곤 했는데, 이곳을 처음 본 순간 너무 매력적이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13년 전, 이곳에 집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주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을 보호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섬의 보존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2

섬을 지키기 위해 저 스스로 악성 민원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목소리를 내다 보니, 어느새 섬을 지키는 싸움꾼이 된 것 같아요.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편의시설이 부족한 섬이다 보니, CCTV 설치 요청이나 문화재 반출 문제에 대해 시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섬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노력입니다. 저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Q3

주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며,
이들이 방문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A3

주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외에도 섬의 독특한 풍경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십니다. 조용하고 작은 섬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백야도와 낭도를 거쳐 하루에 400명씩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대문을 잠그고 피해 다닐 정도였어요. 화장실을 빌려 달라거나 물을 달라,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도 많았고, 그로 인해 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섬을 외부에 잠금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선을 이용해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10명을 태워야 하는 배에 30명까지 태우는 경우도 있어 위험이 따릅니다.

주도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섬입니다. 작은 섬이라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큰 섬에서 식사와 숙박을 해결한 후 방문하는 형태라서, 실질적으로 주도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섬 주민과 자연 환경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Q4 추도에서 추천하는 숨은 명소나 특별히 인상적인 장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A4 추도에는 몇 군데 특별한 명소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용궁입니다. 용궁 주변의 바위 경관은 정말로 탄성을 자아낼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바위층의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낭도, 추도 일대에는 총 3,8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인 추도에는 약 1,800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온천지에 분포한 공룡 발자국들은 현재 많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발달된 화석층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Q5 추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점이나, 함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5 추도는 생태적 가치를 지닌,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관광 목적보다는 이곳의 자연을 이해하고 생태를 체험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돌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 주시고, 섬의 모든 생태가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Q6 추도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히 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A6 추도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 중 하나는 섬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였어요. 이생진 시인님을 모시고 시 낭송과 음악회를 함께 했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노을이 지는 돌담을 배경으로, 마이크나 특별한 음향 시스템은 없었지만, 87세 할머니와 "섬으로"라는 동호회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 인원은 몇십 명에 불과했지만, 그날의 음악회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일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원만으로도 마을 주민들과 추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음악회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모두 행복 했고, 그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추도를 보고 시를 지어 낭송하기도 했고, 모두가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생진 시인과 함께한 추도의 작은 음악회

Q7

10년 후에도 추도가 아름답게 보존되길 바라고 계신데, 이를 위해 필요한 변화나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섬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A7

저는 10년 후에도 추도가 지금 모습 그대로, 이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속살이 가득 찬, 사람들로 붐비기보다는 자연의 본래 모습을 간직한 섬이었으면 해요. 얼마 후에 여행객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입구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와 쓰레기 처리 시설, 쓰레기봉투, 텀블러 같은 기본적인 환경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방문하는 분들이 가져온 것은 꼭 가져가면서, 이 섬을 보존하는 마음으로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네요. 몇 명 안 되는 섬 주민들이 이 섬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 지원이나 탐방비, 환경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섬과 마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단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곧 차도선도 들어올 예정인데, 섬을 지키기 위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지원이 필요해요. 행정에서 주민들이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사실 큰섬에서 여행객들을 풀어놓기만 하고, 정작 이 섬을 위한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았습시다. 이제는 함부로 이 섬을 대할 수 없게 하고 싶어요. 남도와 사도에 곧 다리가 놓여 3분 만에 추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섬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도선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섬으로 오가기가 편해진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이 섬에는 함께할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욕을 먹더라도 섬을 위해 함께 해줄 사람들이요. 도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이곳에서는 불편하지 않아요. 자연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경험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죠. 추도는 사람들의 소음이 아닌 파도 소리와 자연의 음악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없이, 오롯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추도가 10년 후에도 이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남은 잔잔한 여운

그녀와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이 섬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도 섬에 대한 애정과 소중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에게 추도는 단순히 생활의 터전이 아닌,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살게요. 다 같이! 생각의 가치를 바꾸어 보세요. 추도에 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초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추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영심 시인님의 추도라는 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들려온 그 시의 구절들은 마치 추도의 한적한 바람과 파도 소리처럼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도의 시를 통해 이 아름다운 섬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영심 시인
추도 읽기



앗! 사도에만 살아봐서

사도 장원모 이장



Q1 사도에서의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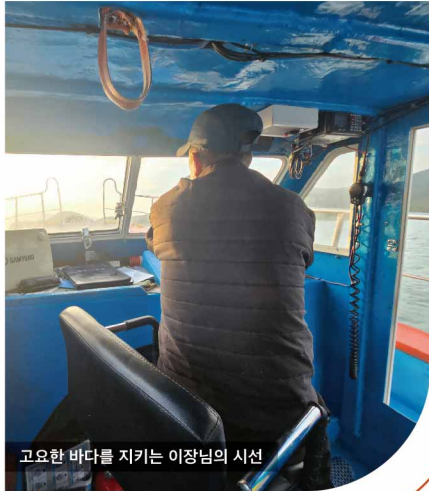
A1 저희 가문은 대대로 사도에서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모두 사도에서 태어나셨고, 저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여수에서 다녔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계속 사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고,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신 후 저 역시 남은 생을 이곳 사도에서 마감하려 합니다. 이곳 사도는 섬마을이라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예전에는 농사도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문어 통발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문어가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Q2 예전에는 사도에서 땅 농사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하셨나요?

A2 원래 사도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낭도 섬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공이 하루에 세 번 나룻배를 운행하며 아침, 점심, 저녁에 사람들과 농산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생활하셨죠.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셔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낭도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어 그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바다에서 문어잡이 통발업을 하게 되었죠. 현재 홀로 지내시는 독거 노인 분들은 작은 텃밭에 배추, 고추, 마늘 등을 조금씩 심어 자급자족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Q3 사도에서는 특별한 행사나 전통 의식이 열리기도 하나요?

A3 예전에는 큰 행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던 시절에는 이 섬에 75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12가구만 남아있지만, 그때는 음력 정월대보름과 초하루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 선산과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와 바닷가에서 각 가정이 상을 차리고 굿을 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음식을 바다에 뿌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죠. 우리 동네의 중요한 행사였는데, 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더 이상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를 지키는 이장님의 사진

Q4 사도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A4 가장 불편한 것은 의료와 교통 문제입니다. 밤에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차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119를 불러 배를 타고 낭도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죠. 다리라도 놓여서 차량이 다닐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 점이 늘 걱정입니다.

Q5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업을 하시면서 바다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A5 아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쓰레기가 유난히 많이 밀려와요. 여기가 해수욕장이기도 하고 언제 관광객이 올지 몰라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주민들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을에서 소각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는데, 낭도 같은 경우는 차로 쓰레기를 실어 나를 수 있지만, 작은 섬인 우리는 불공평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생태계 변화도 큼니다. 저는 20년 넘게 문어 통발 어업을 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상한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생전 본 적 없던 열대 지방의 물고기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은 꽃게 철인데, 우리가 익숙하던 꽃게가 아니라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큰 꽃게가 잡히고 있습니다. 한 번 잡아서 삶아보니 맛은 괜찮더군요, 허허허. 이런 생물들이 밀려온다는 건, 이곳의 수온이 예전과 달리 많이 올라갔다는 증거겠죠. 예전에는 노래미, 뽕락, 감성돔 같은 다양한 어종이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그런 고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 변화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사도리사무소로 출근하는 이장님의 든든한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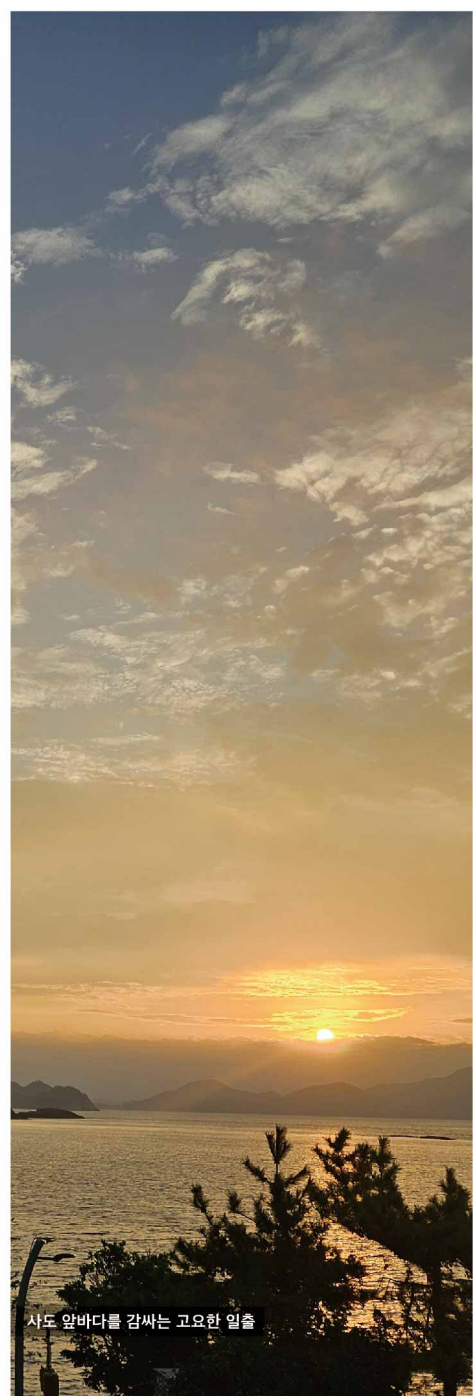
Q6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생길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주민들께서 이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A6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어요. 물론 문화재는 보호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다리가 꼭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 있긴 하지만, 다리가 놓이면 가족이나 관광객들이 더 편하게 오갈 수 있겠죠. 이를 대비해 마을 정비를 위해 노인 일자리와 부녀회 주관으로 동네 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큰 섬을 8명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작업하는 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도에는 숙박업소가 6-7곳 정도 있는데, 다리 공사가 시작되면 공용 샤워장과 화장실, 편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마을 조경 정비 등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도를 찾는 분들이 오래 머무르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Q7 앞으로의 사도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A7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유동인구도 많아져서 섬이 활기를 띠면 좋겠습니다. 소득도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소득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고 잘 어우러져 살았으면 합니다. 본래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12가구, 약 25명이 살고 있는데, 작은 동네이기에 이러한 바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성격이 다르더라도, 서로 어울리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사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앞바다를 감싸는 고요한 일출

인터뷰를 마치고 남은 잔잔한 여운

사도 이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이곳에서의 삶이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사도에서 살아온 그의 이야기는 섬에 뿌리내린 세월만큼이나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기후 변화와 쓰레기 문제, 의료와 교통의 불편함 속에서도 섬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사도가 앞으로도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로 남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동인구가 많아지더라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어우러지길 소망했습니다. 다리가 연결되고 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그날을 준비하며, 주민들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장님의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여수 사도·추도 투어 가이드

기본 현황(2024. 10. 29. 기준)

구분	사도	추도
가구·인구	25가구·39명	6가구·9명
면적·해안선 길이	0.14km ² ·4.58km	0.06km ² ·1.85km



전남 섬 여행 날씨확인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조?



사도 여객선 운항정보

※ 추도는 아직 여객선이 없습니다. (2025년 운항 예정)

항 차	태평양 1호 운항시간표 (남도↔여수)							
1	남도	사도	상화도	하화도	모전	여석	백야	여수
	07:00	07:10	07:20	07:30	07:40	07:00	08:10	08:50
2	여수	백야	여석	모전	하화도	상화도	사도	남도
	14:00	14:45	15:05	15:15	15:20	15:30	15:40	16:00
참고사항	· 정기 휴항 : 매주 일요일 · 운항 시간 및 운임 문의 : 태평양해운(주) : 061-662-5454 · 운임 : 남도 -> 사도 3,600원 / 여수 -> 사도 12,500원 (성인 1인, 편도 기준) · 주소 : - 여수 연안여객선터미널 :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 남도항여객선터미널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1314-11 · 유가상승으로 인해 2022년 4월부터 유류할증료 요금이 청구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 시간표는 기상악화 및 선사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니 이용전 문의바랍니다.							

사도 숙박·식당 정보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도전통한옥민박	사도길 26	061-666-0012 / 010-6620-0013
사도횃집민박	사도길 16	061-666-9199
모래성 한옥 펜션	사도길 20	010-8287-2220
우리동네민박	사도길 22-3	010-5638-4505
철이민박	사도길 37-5	010-5447-5235
로댐민박	사도길 41-1	010-7652-0046
장원모민박	사도길 32	010-9622-0019

- 추도에는 식당이 없으므로, 방문 시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도에서는 일부 민박집에서 식사가 가능하니, 방문 전 확인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가깝고도 먼 두 섬,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

사도와 추도는 배로는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깝고도 먼 섬입니다. 두 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없어 매일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음력 2월 영등사리와 백중사리 등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기에는 길이 바닷길이 열려, 두 섬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에서 바라본 추도로 향하는 바닷길(사진제공 : 여수시 관광과)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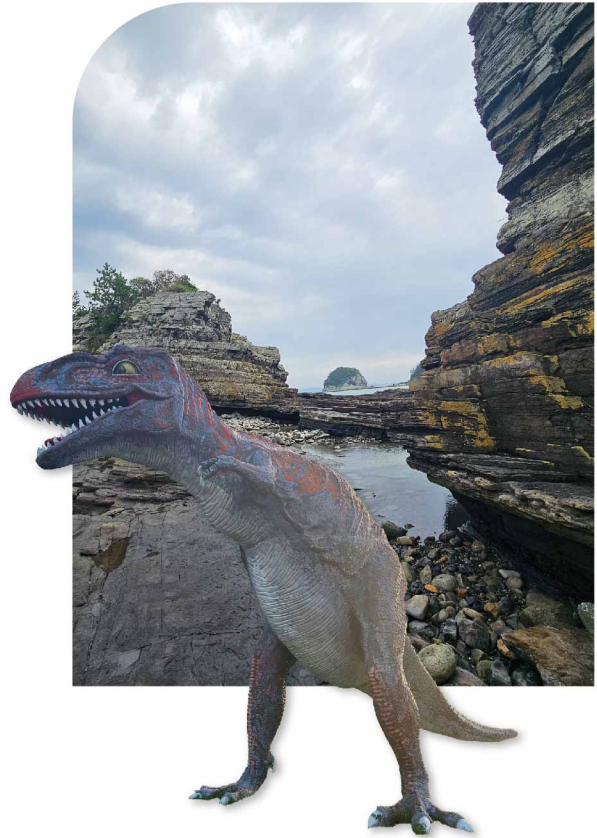
알면 알수록 더 생생해지는

공룡 발자국의 흔적

사도와 추도의 공룡화석지를 탐방하려면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의 화석지는 대부분 물이 들어차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1억 년 전 공룡 등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된

사도와 추도의 공룡화석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

여수 사도와 추도 공룡화석지: 1억 년 전의 발자국이 전하는 이야기

여수 사도와 추도는 우리에게 지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 형성된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도와 추도 해안가에 위치한 발자국 화석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과거의 생태 환경과 공룡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시간 속으로 떠나는 창구이자, 지구의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석지의 발자국들은 지질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백악기 시대는 공룡이 번성하던 시기로,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와 추도의 발자국 화석은 이러한 과거의 환경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며, 당대의 생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하고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역사서와도 같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이 퇴적층은 해안선의 침식 작용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해수면의 변화와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가 다시 감춰지기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보존된 것입니다.

사도와 추도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곳은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의 발자국이 다수 발견된 지역으로,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자료 출처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전국 지질 조사 보고서", 1999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사도 및 추도 공룡 발자국 화석지 연구", 2001년

- 국가유산청 - "여수 사도 및 추도 공룡 화석지 학술 연구 및 보존 방안", 2010년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룡 화석지의 지질학적 가치와 보존 전략", 2012년

어디에 어떤 발자국이?
공룡 발자국 위치와
종류 알아보기



공통 발자국 화석의 종류

구분	특징	형태
수각류 (Theropod)	· 육식공룡, 2족 보행 · 길고 뾰족하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3개의 발가락과 좁은 뒷발꿈치 흔적 · 티라노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등	
조각류 (Ornithopod)	· 초식공룡, 2족 / 4족 보행 · 짧고 뚱뚱한 3개의 발가락 흔적 · 이구아노돈, 하드로사우루스 등 · 국내 보고된 공룡발자국 중 가장 많음	
용각류 (Sauropod)	· 초식공룡, 4족 보행, '목긴공룡' 별칭 · 앞발은 뚱뚱하고 반달 형태 · 뒷발은 넓고 둥글며 4~5개의 발가락 흔적 · 브라키오사우루스, 티타노사우루스 등	

사도와 추도의 발자국 화석은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 혼재해 있습니다. 초식 공룡은 넓고 둥근 발자국을 남겼고, 육식 공룡은 날카로운 발톱 자국을 남겨 오늘날까지 그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발자국은 그 공룡들이 어떤 크기였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했는지를 추정하게 해 줍니다. 이러한 발자국의 배열을 통해 연구자들은 공룡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했는지, 해안가를 따라 서식지를 넓혀갔는지 등의 생태적 특성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사도와 추도의 공룡화석지는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공룡화석지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된 이곳은 해안선에 위치해 있어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 주, 중국의 쓰촨성 화석지와는 달리, 이곳은 바다와 가까워 발자국이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드러나고 감춰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보존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연구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화석지는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류의 유산을 체험하고 보존해야 할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공간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와 추도 공룡화석지를 방문하는 것은 과거의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공룡의 생애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곳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장소이자, 미래 세대에게도 지구의 오랜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수 사도와 추도의 공룡화석지는 단순한 관광지
아니라, 1억 년 전 공룡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연구
장소이며, 지구의 자연사와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입니다. 이 화석지가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아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이해런님 소식

국화의 계절 가을, 가고 싶은 섬 신안 고이도 아자니아 축제 열려

»»»»

가고 싶은 섬 신안 고이도는 섬 테마를 '갯국의 섬'으로 지정하고, 마을 여러곳에 갯국정원을 조성했어요.



고이도 출신 트로트가수 현진우의 노래로 성대한 막이 올랐고, 마을 주민들의 음식솜씨를 엿볼수 있는 마을식당과 꽃밭만들기와 전통놀이 등 체험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손님맞이를 했어요.

노오란 갯국과 함께 진행된 '아자니아축제'. 신안 고이도 주민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을바람에 휘날리는 국화. 그 중에서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는 국화를 갯국이라고 해요. 10월에서 11월에 노란색 꽃이 줄기 끝에 피는데 작은꽃들이 동글동글 뭉쳐난답니다.



봄과 여름 동안 따스한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갯국들을 자랑하고자 신안 고이도에서 '아자니아 축제'가 열렸어요. (아자니아는 갯국의 학명이예요) 11월 1일, 개막식! 태풍이 접근해 비 바람이 불었지만 축제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신안 가룡항에서 플로피아호를 타고 고이도에 와주셨어요. 특히 이곳 가고 싶은 섬 선도에서는 40여분이 참석해 축제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신안 고이도 아자니아 축제 현장 (사진제공 : 신안군)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김성경님 소식

"함께 만드는 완도 여서도의 미래:
선진견학으로 배우고 나누다"



고창 모양성 앞에서 함께한 단체사진



특히 인상 깊었던 방문지 중 하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전통 담장을 정비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창의 모양성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사례 강의를 들으며, 이를 여서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서도를 찾을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조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모두가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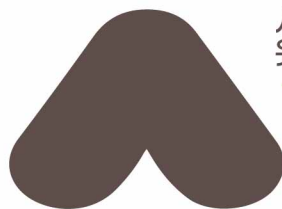


신안 자은도에 있는 '신안 그린에너지' 견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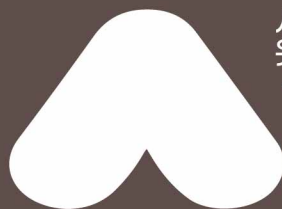
또한,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들은 여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여서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화합과 노력 덕분에 여서도는 점점 더 살기 좋은 섬,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영해의 기점인 여서도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열정이 가득한 이번 선진견학을 통해,
여서도가 더욱 사랑받는 섬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